

# 정착 안 된 제도에 애꿎은 관리원은 힘들다



##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5년

(상)과태료 0건의 ‘이면’

오는 25일이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시행이 5년을 맞는다. 별도 분리된 투명 페트병을 고품질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는 등 자원 순환을 위해 도입된 제도는 시행 초기 정부와 지자체 등의 대대적 홍보에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적용 대상도 확대돼 거주 형태와 관계없이 일상에서 모두가 지켜야 하는 제도로 거듭났지만 당장 주변을 둘러봐도 완전한 정착은 아직 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보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의 현 주소와 개선 과제 등을 3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

2020년 12월25일 공동주택 시행

1년 후 단독주택 확대 등 본격화

위반 적발 어렵고 뒤처리 수고 커

별도 수거 공간 없는 곳도 상당수

“좋은 마음으로 라벨을 떼야 한다고 안내도 하면서 직접 처리도 했지만, 손이 너무 가깝네요.”

4일 오전 9시께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 이곳의 경비원 A씨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이 도착하기 전 ▲투명 플라스틱 ▲일반 플라스틱 ▲알루미늄 ▲유리 ▲종이 등의 분리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

다른 품목에 대해선 어렵지 않게 확인을 마친 A씨였지만, 플라스틱 더미 앞에선 큰 한숨을 내쉬었다.



색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리하는 수거함이 구분돼 있었지만, 안의 내용물은 그렇지 않아서다.

섞여 있던 플라스틱을 하나하나 꺼내 들며 다시 구분하던 A씨는 상호 등이 써져 있는 라벨이 붙은 것들이 무더기로 나오자 끼고 있던 장갑을 벗어 손으로 뜯기 시작했다.

라벨은 큰 어려움 없이 떼졌지만, 내부에 남아 있던 액체가 A씨의 손에 흘러 장갑으로 이를 다 시뭇는 일도 허다했다.

비슷한 시각 서구 쌍촌동 한 원룸가는 150m 거리에 10채의 공동주택이 모여 있었으나 투명 플라스틱을 별도로 버릴 수 있는 수거함은 2곳에만 있었다.

투명 플라스틱 배출함이 없던 한 원룸의 관리인은 “수거해 가기 전 직접 분리하고 있다”며 “비닐 봉투에 별도로 담아서 버리는 입주민도 있긴 하지만 극히 일부”라고 전했다.

이렇듯 잘못 버린 사람이 아니라 관리하는 이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는 지난 2020년 12월25일 시행됐다.

시행 초기엔 공동주택만 대상이었으나 1년 뒤부터 단독주택으로 확대돼 사실상 모든 주거 형태에서 이를 지켜야 한다.

분리배출은 겉면 라벨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

하고 내용물을 세척해서 깨끗이 비운 후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광주 5개 자치구에선 제도 시행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투명 플라스틱 분리배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 관계자들은 혼합 배출 행위가 현장에서 목격되는 등 직접 적발돼야만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그간 단 한 건의 과태료 부과 없었는 대목에서 단속을 통한 제도 정착 건임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 자치구 관계자는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나가긴 하나, 배출자를 식별하는 건 다른 문제”라며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있어 요일제 배출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연상 기자

## 日 강제동원 정신영 할머니, 80년만에 나고야 찾는다

소송 지원 단체·투병 중 대표 등 면담

도난카이 지진 81주기 추도식 참석도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 제작소에 강제동원 돼 모친 고역을 치른 정신영(95) 할머니가 80년 만에 다시 나고야를 찾는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정 할머니가 오는 6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나고야를 방문한다고 4일 밝혔다.

정 할머니는 나고야에서 근로정신대 관련 소송을 돕고 있는 ‘나고야소송지원회’ 회원들과 투병중인 다카하시 마코토(高橋博) 소송지원회 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또 1944년 나고야 도난카이 대지진으로 숨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7일 열리는 도난카이 대지진 81주기 희생자 추도식에도 참석한다.

정 할머니는 1944년 5월 14세의 나이로 나고야 항공기제작소에 징용됐다가 1945년 10월 구사일생으로 고향인 나주로 돌아왔다.

그녀가 끌려간 해인 12월에 발생한 도난카이 대지진으로 함께 동원됐던 친구 6명이 숨졌다.



일제강점기 나주에서 강제동원 된 근로정신대 소녀들. 1944년 5월말 나주대정국민학교(현 나주초등학교) 6학년 재학생과 졸업생 등 24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됐다. 사진은 일본에 도착해 본격적인 노동에 투입되기 전 나고야성 앞에서 촬영한 기념사진. 정신영 할머니는 앞줄 왼쪽서 두 번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이후 정 할머니는 2020년 1월 민변 광주전남 지부의 도움을 받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증빙 과정에서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 연금기구는 정 할머니의 후생연금 가입을 부인했다가 나중에 탈퇴수당 명목의 99원(약 931원)을 정 할머니에게 송금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정 할머니 사건은 지난해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으며 미쓰비시중공업이 항소해 현재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정 할머니는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지진 당시의 공포와 폭격기 굉음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며 “이제는 지팡이에 의지해야 움직이지만 죽기 전에 억울하게 죽어간 친구들 흔적이라도 찾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서형우 기자

## 광주 지하철역 승강장 방화범 ‘징역 8개월’

쓰레기통에 불...법원 “지적장에 참작”

지하철역 승강장에 불을 내고 도주한 지적 장애인인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일 오후 10시18분께 금남로4가역 지하 4층 승강장 부근에 있던 쓰레기통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범행 후 아무

런 조치 없이 자리를 벗어났다.

다행히 불은 역사 직원들에 의해 5분여 만에 꺼져 별다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범행이 갖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대차 역시 무책임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기 진화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지적 장애가 있어 합리적 판단이나 선악 구별에 일반인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

## ‘사기’ 50대 구치소서 또 사기 ‘징역 6년’

동료 수감자로부터 10억 편취

접견 변호사 숙여 옥중 결혼도

사기 범행으로 옥살이를 하던 50대가 구치소에서 또 제 버릇을 못 고쳐 추가 징역형을 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을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앞선 사기 행각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2021년 동료 수감자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0억원

을 받아 가로챘 혐의 등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경력과 학력, 재력 등을 과시하며 투자를 유도했는데, B씨는 출소 후에도 그를 만나기 위해 구치소를 14차례나 찾아갈 정도로 철저히 속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자신을 접견했던 변호사 C씨에게 유명 기업의 실제 사주인 것처럼 행세했다.

이에 속은 C씨는 A씨와 혼인 신고까지 했으나 뒤늦게 거짓임을 알아차려 이혼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늙어가는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



AI가 광주매일신문을  
똑똑하게 읽어줍니다.

###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